

‘사직교수 없다지만’ 의료 공백·경영난 악화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 19명 사직서 제출한지 한 달 대학 인사과로 사직서 공식 접수 안돼 효력 없을 듯 적자 계속 쌓여 이르면 내주 비상경영체제 공식 선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를 맞은 25일, 실제 의료 현장을 벗어난 교수는 없지만 제주대병원에선 필수 의료 분야 공백과 경영 악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5월 초쯤 비상경영체제를 공식 선포할 계획이다.

25일 제주대학교와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제주대 의대 교수는 모두 19명이다.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되면 수리되지 않아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주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수들이 소속 의대에

제출한 사직서가 교원 인사과로 넘어오지 않아 공식 제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전임 교원의 사직서는 각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또 해당 단과대는 공문으로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전달해야 공식 제출로 인정되는데 이날 현재까지 본부가 접수한 (의대 교수 사직) 공문은 없다”고 말했다.

또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사직서를 낸 교수들 중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서 교수들이 밝힌대로 사직서 제출은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지, 실제 의료현장을 벗어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내 교수 의료진 중 실제 사직하거나 주 1회 휴진하겠다는 의

사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으로서선 한숨을 돌렸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필수 의료 분야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로 혈액 투석 환자를 치료하는 신장내과 쪽 전문의는 3개월여 사이 5명에서 1명으로 쪼그라들 상황에 놓였다. 신장내과 전임의(펠로우) 2명이 전공의 사태로 인해 사직하고, 1명이 해외 연수를 떠난데 이어, 남은 전문의 2명 중 1명마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지난해부터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원 측은 사직서를 낸 전문의에게 대체 의료진을 구할 때까지 병원을 지켜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대병원이 운영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도 의료 공백 위기를 겪고 있다. 의료진 5명 중 1명이 전공의 사태로 빠져나간데 이어, 비슷한 시기 또다른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면

서 현재는 3명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은 의료진 3명 중 1명이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오는 8월 장기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40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제주대병원에선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해 매일 1억5000만원씩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으로 병상 가동률이 낮은 과는 외래 진료를 확대하고, 전공의 이탈로 피로도가 누적된 과는 외래 진료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5월 초쯤 비상경영체제를 공식 선포해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과별로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 진료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제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새매와 큰부리까마귀의 영역 다툼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상공에서 새매와 큰부리까마귀가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녀문화 전승 구심점... 전국해녀협회 9월 출범

25~26일 제주서 8개 연안시도 해녀담당 공무원 실무협의회 해녀협회 설립 적극 뜻모아 국가 지원 정책기반 마련키로

오는 9월 열리는 ‘제주해녀축제’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해녀협회 설립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이틀간 도 일원에서 전국 8개 연안시도 해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행정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오는 6월 전국해녀협회 설립 발기인대회와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안 수립, 예산 확보 방안 등 전국해녀협회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전국해녀협회는 임원 14명, 지역별 해녀 대표 대의원 100명 등으로 구성되며 발기인대회는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해녀협회 필요성을 공유하고 장립 준비위원회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가 예정된 9월 20일 제주해녀축제까지 법인 정관을 마련해 확정하고, 창립총회 이후 해양수산부에 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제주도내 해녀는 1970년 1만4143명에서 지난해 기준 283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

상 해녀 비중이 90.3%를 차지하고, 80세 이상 해녀도 47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만여명의 해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문화적·어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및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해녀 보전정책을 추진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면으로 계속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4·3 다큐 만드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감독과 치유사...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통폐합 논의 본격

30일 한림지역에서 간담회 다음달 3일 고교체제 포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합 논의와 통학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학교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한림읍 관내 초·중학교 교육 여건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는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현안이 대두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를 위한 토론회’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25 학교 소규모화 지수’ 산출 결과, 도내 전체 초등학교 118곳 가운데 37개교(31.35%)가 1단계 고위험군 학교에 속했다.

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자리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5월 3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1층 대강당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 포럼’을 주최한다. 강다혜기자

名濟 酒州 대한민국 정상, 제주 프리미엄 증류주

한리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SINCE 1950

제주의 [귀함]을 담다.

; 제주 바람이 빛은 술

✓ (주)한라산의 전통성과 기술력

✓ 오크통 숙성 원액과 100% 국내산 쌀 블렌딩

✓ 제주 화산암반수 사용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